



한국의 피겨여왕 김연아가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열린 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싱글 프리 경기를 마치고 관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피겨여왕

우승후보 KIA·두산 '장군멍군'



16일 KIA 안치홍 역전 스파이런 3-2 승리

17일 선발 양현종 무너져 2-7 첫 패배

맞수의 대결이 주말 무등야구장을 달궜다. 16·17일 고속행진중인 '우승후보'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가 무등경기장에서 만났다. 맞대결 전까지 3전 전승을 달렸던 양팀은 1승씩을 가져가면서 시범경기 공동선 두에 올랐다.

16일에는 집중력 싸움에서 KIA가 승리를 거뒀다.

국내대표로 발돋움한 두산 선발 노경은의 호투와 KIA는 5회까지 하나의 안타밖에 뽑아내지 못하며 0-2로 끌려갔다.

7회 말 KIA가 비판 투수 홍삼상을 상대로 연속 볼넷을 골라내며 무사 1·2루, 김상현이 좌익수 플라이로 물려났지만 안치홍의 타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3-2의 역전극이 연출됐다.

이대환·박지훈·유동훈으로 이어지는 계투진이 모두 삼자범퇴로 1이닝씩을 책임졌고, 마무리 앤서니도 1사 1·2루의 위기를 플레이 와 땅볼로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완성했다.

17일 두 번째 대결에서는 선발 싸움에서 KIA가 밀리며 2-7 패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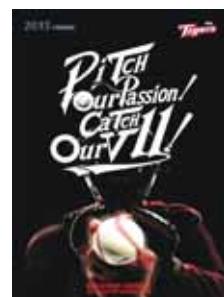
선두타자 이종욱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경기를 시작한 양현종이 김현수의 적시타로 점수를 먼저 내줬다. 2사 1·2루에서는 양의지의 안타가 나오면서 0-2.

4회에는 8·9번 정수빈과 하경민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뒤 볼넷까지 내주면서 2사 만루의 위기, 박건우의 짜증이 2루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0-5까지 벌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팬북 발행



KIA 타이거즈가 2013시즌 팬북을 발행했다. 'V11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컨셉으로 생동감 있는 경기사진을 활용해 비주얼을 강화했으며, 지난 시즌 결산과 올 시즌 전망을 비롯한 타이거즈 대표 선수 11명의 스타화보로 꾸며졌다.

제 2의 야구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김진우와 올 시즌 '호랑이 군단'에 합류한 김주찬도 만나 볼 수 있다. 텔런트 남보라의 'V11 기원' 응원 인터뷰도 담겨있다.

이번에 발간된 팬북 가격은 1만원으로 위판(www.wefan.co.kr)과 비전코리아(www.vjkorea.com)에서 18일부터 판매된다. 또 광주구장 타이거즈 등에서도 30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우승

카를리나·마오 20점 이상 따돌려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화려하게 날아올랐다.

김연아는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베드웨이저 가든에서 치러진 대회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무결점 연기로 148.34점을 받아 쇼트프로그램 점수(69.97점)를 합쳐 종합 218.31점을 획득, 2위 카를리나 코스트너(197.89점·이탈리아)를 무려 20점차 이상으로 크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김연아는 이날 기술점수(TES) 74.73점과 예술점수(PCS) 73.61점을 기록했다.

김연아는 완벽한 연기로 올 시즌 여자 싱글 최고점을 찍었다. 종전 기록은 지난달 4 대회 선수권대회에서 아사다 마오(23·일본)가 기록한 205.45점이다. 아울러 김연아의 이날 점수는 여자 싱글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다. 역대 최고 기록도 김연아가 보유하고 있다. 바로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작성한 228.56점이다.

그는 1년 8개월만의 복귀전이었던 지난해 12월 NRW 트로피(201.61점), 올해 1월 전국 종합선수권대회(210.77점)에 이어 세 대회 연속이자 개인통산 6번째 200점대 기록을 달성하며 '여왕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로

써 김연아는 2010·2011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잇따라 준우승에 그친 뒤 2년 만에 복귀한 올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피겨 여왕의 귀환을 전 세계에 알렸다.

김연아가 세계 선수권대회 정상을 탈환한 것은 2009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4년 만이

218.31점…김연아 완벽한 연기로 세계정상 탈환



점프(기본점 10.10점)와 트리플 플립(기본점 5.30점)을 완벽하게 뛰어올라 각각 1.90점의 높은 수행 점수(GOE)를 행한 김연아는 이어진 스핀연기에서도 레벨 4를 받으며 좋은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트리플 살코(기본점 4.20점)에서 GOE 1.40점을 받은 김연아는 스텝 시퀀스에서도 레벨 4와 함께 1.40점의 GOE

로 '가산점 행진'을 이어갔다.

경기 시간 절반이 지나 10%의 가산점이 붙는 구간에 들어선 김연아는 트리플 리츠(기본점 6.60점)까지 무난하게 뛰어올라 1.80점의 GOE를 더했다. 이어진 더블 앤더블 토토프-더블 토토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7.04점)도 매끄럽게 처리해 GOE 0.79점을 더했다.

트리플 살코-더블 토토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6.05점) 역시 미친가지로 1.30점의 GOE를 획득했다. 레이비 스핀에서 레벨 3을 받은 김연아는 이어진 코로에 시퀀스를 무난히 넘긴 뒤 더블 앤더블(기본점 3.63점)을 깨끗하게 뛰어 1.14점의 GOE를 챙겼다.

김연아가 레벨 4의 체인지도 콤비네이션 스핀을 마지막으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경기를 마치자 관중은 힘찬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때서야 김연아도 긴장에서 벗어난 듯 편하고 환하게 웃었다.

/연합뉴스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하니문 고객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쉽 카드인 신양 하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객실이용시 40% DC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 시 10% DC

가족모임(돌잔치, 고학연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현수막, 케이크 서비스)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휴트니스 이용 시 40% DC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 시 50% DC (단, 본인 2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과 전품목 20% DC

